

특 집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 : 프로그램별 진행보고

각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프로그램별 진행보고를 사전에 요청하였다. 이에 진행자들이 정리해서 보내온 내용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우리 협회 독서진흥위원회〉

세미나 ①

성인용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본방향



한국도서관협회 독서진흥위원회에서는 작년 제 41회 도서관대회에 이어 올해도 ‘독서치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0월 14일(목)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열린 이 세미나는 최근의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도서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독서치료 관련 학계의 활동으로 먼저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한윤옥 교수는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의의와 상황설정”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상황별 독서목록의 의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술적 서지통정에서 실효적 서지통정으로, 서

지적 원조자에서 서지적 컨설턴트로, 서지의 개별화 유도 및 좋은 책 발굴 등으로 그 의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올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문화관광부 재정지원을 받아 연구중인 “상황별 독서목록-성인용편”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성인용 정신 상황을 연령층, 성별, 공간, 관계 원리로 전개해 주었다.

또한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의 독서치료 관련 활동으로는 울산남부도서관 김순화 사서가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울산남부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으로는 겨울·여름 독서교실, 어린이 독서치료 강좌, 토요일 독서교실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주부를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강좌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근의 문화강좌 프로그램에도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참여하고 있었다.

주제 발표가 있는 후 세미나에 참여한 참석자와의 자유로운 토론이 있었다.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승환 교수는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독서회와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좋은 의견을 주었으며, 또한 파랑새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참가자는 독서치료에서 ‘치료’라는 용어가 아동의 경우 자칫 자기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잘못 인식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정근 교수는 독서치료가 도서관 관계의 위상과 사서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도서관 현장 사서의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 황금숙, 대림대학 문헌정보과 교수, gshoang@daelim.ac.kr]

세미나 ②

도서관에서의 주5일 근무제 대응전략



10월 14일 오후 4시 수많은 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정부의 행정기관 토요일 휴무제 실시로 인해 비롯된 '도서관에서의 주5일 근무제 대응전략'은 우리 도서관계, 특히 공공도서관계의 핫이슈임이 분명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우선, 박정희 사서가 '공공기관의 변형근무시간제 운영사례 연구: 인천광역시 부평도서관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였다. 참석자들은 발표자가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표를 경청하였다. 변형근무시간제가 정

부의 주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열악한 사서직의 근무조건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발표중간에 신기남 한국도서관협회장, 임병수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이 조용히 뒤편으로 입장하여 10여분간 발표를 경청하였다. 항상 큰 이슈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보다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어서 이 세미나를 개설한 협회 권익협력위원회 위원장인 필자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도서관의 전략 및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주제발표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오늘의 주제 발표 논문은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위원회와 권익협력위원회가 몇 차례 연석회의를 거치면서 연말까지 계속 보완해 나갈 초안이란 점을 설명하였고, 더 나은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보고서는 우리 사서들만의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를 토대로 '도서관에서의 주5일 근무제 대응전략'에 대한 주장을 담아야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의 현행 행정기관 토요일 휴무제에 대한 지침 내용, 공공도서관의 열악한 근무 현황, 전국의 사서직원들이 바라는 근무 유형, 한국도서관협회가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건의서, 우리나라 국민의 주5일제와 관련지을 수 있는 연도별 문화향수 실태 조사 결과, 향후 한국도서관협회, 사서직원, 문헌정보학계별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발표 후 더 나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참석자의 질문 및 조언들이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훌륭한 제안들이 있으면 전자우편 등으로 연락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세미나를 마쳤다.

전국도서관대회가 끝나고 일주일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건의 더 나은 제안이나 건의사항도 접수되지 않았다. 그 날의 많은 사서들의 관심은 단지 거품이었을까? 하고 반문을 하기도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직종의 사람들, 특히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정부의 방침대로 주5일 근무를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사서직은 이렇게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솔직히 서글픔이 느껴졌다. 그렇다고 지금의 사서직 근무 환경이 일반 행정공무원보다 좋으면 논의하면서도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사서직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옹호의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글: 박동철,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kwackdc@chongju.ac.kr]

세미나 ③

과학기술분야 전자도서관의 포털서비스 사례 및 최신 연구 동향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미나실을 배정받아 2시간의 세미나를 주관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번 세미나 내용은 “과학기술분야 전자도서관의 포털서비스 사례 및 최신 연구동향”으로 첫번째는 건설교통분야 지식정보 포털서비스체제 구축사례”에 대해 조정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산실장이, 두번째는 새로운 이용객인 웹 데이터베이스 Scopus의 신뢰성 분석 연구”란 주제로 유재복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표하였다.


지난해에는 우리 협의회 세션은 과학이라는 좀 어려운 분야라서인지 관심이 적어서 사실 좀 실망

을 한 것도 없지 않아서 내심 올해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였다. 그러나 발표시간이 다가오면서 그건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았다. 2~3분 정도를 기다리다가 4시 정각에 사무국장의 오픈 인사에 맞추어 시작을 하면서 자리가 부족하여 의자요청을 하게 되었다. 첫 강사의 발표가 끝난 후 4명의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 강사 역시 같은 수의 질문을 받았다. 두 강사의 강의 내용은 한 사람은 기존 사업에 대한 구축사례에 대하여 결과 발표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개인연구원이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심도에 적절한 배분을 하였다고 본다.

올해의 청중들의 태도와 반응은 그 어느 해 보다도 열기에 넘쳐있었다. 가끔씩은 정적인 분위기에 졸음이란 친구들이 옆에서 방해를 놓기는 했지만 거의 두 시간을 많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다 그 같은 청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단 세미나실 안에 양쪽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 어느 쪽에서든 말하기가 편리하였고, 자원봉사자들이 방마다 배치되어 있어 요청한 사항을 빠르게 수용하여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이 손수 각 세션을 방문하는 관심까지 보여 명예직이 아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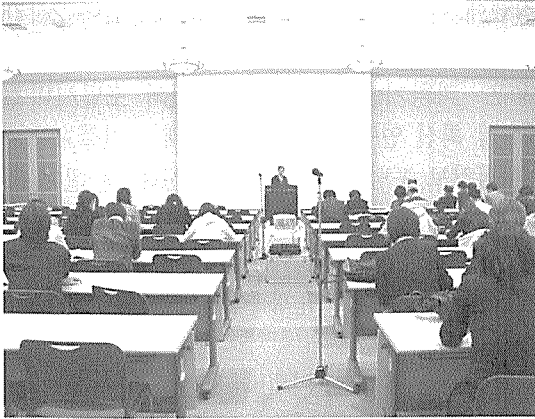
한국도서관협회가 관심있는 주제를 이들에 걸쳐 고루 분배하여 마지막 프로그램까지 도서관인들의 관심을 끌게 한 것은 인상적이었다.

각 방마다 방송장치가 안 되어서 옆방의 발표자 목소리가 계속 들려와 경청하는데 산만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산 BEXCO와 상의하여 주차비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글 : 정현숙, (사)한국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총무, ex-stima@kaeri.re.kr]

세미나 ④

〈서지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문헌정보학계 6개 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의 6개 학회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전국도서관대회장에서 개최하였다. 오전 9시부터 주관 학회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학회장(강남대 김승환 교수)을 비롯하여, 각 학회의 대표와 임원들이 세미나장의 앞자리에 앉아 곧 이어 시작될 세미나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다. 시작시간인 9시 30분이 다가오자 넓은 세미나장은 현장의 사서를 비롯하여 학계의 교수와 학생들로 가득 채워졌다.

처음 발표자로 경북대학교 이창수 교수가 “UDC의 적용분야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UDC를 SDI서비스와 자동분류의 지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자세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발표를 하였다.

두 번째로 대구대학교 김상호 교수는 “도서관 서평의 구조와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서평’을 우리 도서관계가 주도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를 하였다. 시간관계상 질문을 하나로 제한하였지만, 부산대 학생의 진지한 질문에 대한 김상호 교수의 성실한 답변은 세미나장의 열기를 뜨겁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세 번째로 경기대학교 조현양 교수는 “시소러스와 온톨로지의 의미 병합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OWL Lite 구조를 적용한 시소러스 관계표현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조현양 교수는 발표 중에 ‘취업 때 경기대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특별 선처(?)’를 세미나장에 참석한 현장 사서에게 부탁하여, 청중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어느 모임에서나 볼 수 있는 발표 도중의 울리는 핸드폰 소리와 통제되지 않는 일부 청중들의 세미나장 출입은 발표자들의 초점을 흐뜨리는 옥의 티였다. 또한 전시장 지하의 식당은 대회 참석자를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인 자원봉사자와 언제나 열정적인 현장 사서들, 학생과 함께 참여한 교수들이 성공시킨 이번 세미나는 현장과 학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미래 발전모형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도서관계의 한마당이였다.  [글: 남영준,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namyj@cau.ac.kr]

세미나 ⑤


국내외 전문도서관 활동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



한국도서관협회 전문도서관위원회는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문도서관위원회 공개 포럼을 개최하였다. 전문도서관위원회는 한국도서관협회 산하 17개 위원회 중 하나이다.

동 포럼을 개최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전문도서관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했음을 반성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참석자들은 동 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선진국 전문도서관단체의 활동 현황 및 우리나라 전문도서관위원회 발전 방

안에 관하여 전주대학교의 김홍렬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협의회간 협력을 통하여 전문도서관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대법원도서관, 국가연구정보협의회, 지식정보협의회 등의 활동 현황을 각 협의회 관계자들이 발표하였다. 마지막에는 참가자들의 토론이 있었으며, 협의회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전국도서관대회 둘째 날에 개최된 동 포럼의 세미나실은 청중들로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전문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전문도서관위원회 포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다수 참석하였고 또한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우리나라 도서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관종을 불문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동 포럼을 통하여 향후 전문도서관협의회간의 긴밀한 협력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서는 동 포럼을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전문도서관간의 최신 정보 공유와 상호 정보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글: 김석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센터장, sykim@kisti.re.kr]

세미나 ⑥

국가자료 데이터베이스 공동활용 방안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국가자료 데이터베이스 공동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그동안 도서관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해 온 종합목록·목차·기사색인 등 서지데이터베이스 및 원문데이터베이스의 현황을 소개하고 이들 데이터베이스의 도서관간 공동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제1발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DB현황 및 이용”을 주제로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특히 원문데이터베이스의 대상자료 선정·구축방법·주요콘텐츠 소개·도서관과 저작권 문제·이용서비스, 도서관보상금제도 관련 사항 등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있어서 개별 도서관들의 궁금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고지도, 멀티미디어자료 등 콘텐츠의 다양화, textDB 지향, 하이라이트검색 등 검색기법의 향상 등 향후 원문DB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제2발표는 “목차정보데이터베이스 공동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차DB 구축사업의 현황 및 홈페이지 시연, 목차DB의 공동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목차데이터베이스는 2004년부터 도서관간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참석자들은 목차 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었으며, 기능면에서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목차DB 공유가 활성화 되기를 건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내외 종합목록시스템의 사례를 분석한 후 향후 KOLIS-NET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운영 및 데이터품질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아울러 KOLIS-NET이 지식정보화사회의 인프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활성화되기 위한 참여 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다양하고 방대한 디지털콘텐츠를 전국의 도서관 및 이용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세미나의 뜨거운 열기를 통해 도서관들의 디지털 콘텐츠 및 자원 공유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국립중앙도서관은 모든 디지털콘텐츠를 구축함에 있어서 도서관과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중복구축을 최소화하며 자원공유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글: 이선,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slee5905@nl.go.kr]

도서관과 인권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윤리위원회에서 주관한 〈도서관과 인권〉 세미나는 10월 15일(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도서관”과 “인권,” 두 단어의 결합이 다소 생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민중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상의 광장(forum)으로서의 도서관의 사회적 존재 의의를 고려할 때, 인권과 도서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세미나는 무엇보다도 전국도서관대회라는 공론의 장을 통하여 그동안 도서관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단지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던 “인권”의 문제를 도서관 현장에 끌어 들여서 집중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룬 세미나였으며, 진지한 발제와 현실감있는 토론, 그리고 청중들의 관심이 어우러진 좋은 시간이었다. 발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의 심민석 실장이 맡아서 인권의 정의와 범주, 정보기술과 도서관과 관련된 인권문제의 내용, 그리고 실제로 도서관 내에서 제기되는 각종 인권관련 민원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토론을 맡은 서울대학교 농학도서관의 김중은 사서서기관은 실제 도서관 업무에 있어서 인권과 관련된 이슈들과 사례들을 제시하여 실질적 내용 위주의 토론이 되었으며, 청중들로부터의 토론도 이어진 유익한 시간이었다.

내용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이 진행되었으나, 우선 ‘도서관과 인권’이라는 주제의 포괄성을 고려할 때, 인권문제에 대한 시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었다. 즉, 종합적 관점의 발제 뿐만 아니라, 인권신장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 내에서의 인권관련 사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각계의 노력, 그리고 도서관과 사서의 권리 보장 방안 등 보다 다양한 인권관련 주제가 다루어지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일의 세미나는 다소 당위적인 명제를 확인하는 차원의 논의에 머무른 면이 없지 않다. 청중들로부터도 “당위적인 논의라 감정이입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권” 문제가 아직까지 도서관에 있어서 첨예한 관심사로 부각되지 않은 현상 상황에서 적절한 선이해가 부족한 데서 생기는 아쉬움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현장에서 “당위”를 당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그로 인해 사서들이 겪는 괴리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좋은 시간을 마련해 준 한국도서관협회에 감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아쉬운 점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차후의 도서관대회 운영과 주제발표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우선, 운영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같은 시간대에 7개의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점심시간 직후에 세미나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청중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것이다. 차후에는 점심시간을 다소 넉넉하게 배려하고 오후 세션을 1시 30분 정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글 : 장덕현,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dchang@pusan.ac.kr]

연구논문

주제발표논문 공모 3편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주제발표에서 3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논문들의 주제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적극적 이용자 서비스로서의 마케팅, 협력형참고봉사, 시스템간 통합이었다. 최근 도서관계에서 주목 받는 사안인 만큼 정원을 초과한 참석자들이 주의 깊게 경청하였다. 뜨거운 관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문이 적었던 점과 휴식시간 없이 다음 프로그램이 이어짐에 따라 진행이 촉박했던 점이 다소 아쉬웠다.

첫 번째 '도서관 마케팅 활동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발표한 전명숙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2003년

~2004년 IFLA 행사 운영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편집하여 도서관 마케팅 기술의 하나로 소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2006년 한국에서 개최될 IFLA 행사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도서관의 정체성을 잘 살려 상징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시각자료 활용과 국제대회 참석 경험을 바탕으로 행사 준비에서 간과하기 쉬운 점들을 지적하여 참석자들의 흥미를 유발시켰다. 두 번째 '협력형 디지털 참고봉사서비스 Question포인트 운용 사례 분석'에 대해서는 최은주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의 간단한 설명에 이어 이선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초청연구원이 사례 발표를 하였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2004년 한글화하여 서비스 중인 대표적 협력형 참고봉사 서비스 'Question포인트'에 대한 소개하고 성과를 분석했다. 2004년 1월 5일부터 7월 22일 까지 우리나라에서 접수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주 이용자는 이공계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로서 웹폼 질문을 가장 선호하였고(73.7%), 연구형 질문이 가장 많았으며(91.2%), 높은 서비스 만족도(70.7% ~ 95.1%)를 나타냈다. 국제적 협력에 비해 국내 협력이 저조한 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도서관 사서들 또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가 구성되어 정보 제공자로서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발표 후 Question포인트(Question포인트는 미국 OCLC QuestionPoint 한글서비스의 고유명사임) 관련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스템간 연계활용을 통한 전자저널 원클릭서비스: NUCLIS21에서 NDSL 연계활용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해서는 유안나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실 연구원의 발표에 이어 오정훈 한국원자력연구소 팀장의 종합 설명이 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웹기반 전자도서관 NUCLIS21의 전자저널관리시스템에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을 연계한 학술지 통합 검색 시스템에 대한 추진과정과 성과 보고였다. 해외학술지의 경우 통합 검색한 결과에서 전자저널은 원문으로, 인쇄저널은 소장 사항으로 연결된다. 비소장 자료는 검색 결과에서 NDSL의 원문복사서비스로 연결되므로 이용자들의 중복 작업이 감소되었다. 시스템간 통합은 전자저널의 이용 증가는 물론이고 시스템 전면 개편에 따른 비용이나 연간 구입해 온 해외 학술지 목차DB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특히 이와 관련한 다각적 홍보활동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위상을 높인 점은 큰 성과이다. 예산, Local holding 사례보기, 그리고 특정 도서관의 이용자 정보(Profile)를 반입한 SDI 서비스의 방법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 [출: 전혜영, 동아대학교의약도서관 사서, hyjeon@daunet.donga.ac.kr]

워크숍 ①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방향 모색 : 오픈액세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정보공유연대는 10월 1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오픈액세스에 관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오픈액세스는 최근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이다, 그런 만큼 동 세미나는 매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발제자인 정보공유연대의 오병일 사무국장은 지식 문화 확산을 위한 대안적 운동 모델을 제시하고자 현재 저작권체제의 문제점과 정보공유운동의 방향 및 국내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충북대학교의 정경희 박사는 학술커뮤니케이션의 특

징과 오픈액세스형 학술커뮤니케이션에 관하여, KISTI의 황혜경 선임연구원은 오픈액세스 정보서비스에 관하여, 그리고 마지막 연사인 KISTI의 이상호 박사는 일본의 오픈액세스 기반 정보 구축 사례를 각각 발표하였다.

동 세미나가 개최된 세미나실은 청중들로 대성황을 이루어, 도서관인들의 학문적 열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항상 새로운 분야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자 하는 도서관인들의 학문적 자세가 돋보였다. 향후에도 오픈액세스 관련 연구는 물론 연구 결과를 구현한 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지식을 상호 교류하는 만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글 : 김석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센터장, sykim@kisti.re.kr]

워크숍 ②

Millenium MAP & ERM System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 이틀제인 10월 15일, “Millennium MAP & ERM System: So Innovative!” 라는 제목으로 열린 워크숍은 25여명의 청중이 참여한 가운데 INNOVATIVE Korea의 박혜옥 대표이사의 발표와 질의 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Innovative Interfaces Inc.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총본부를 두고 전세계 42개국 4,500여개 도서관에 도서관 통합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시스템의 혁신성과 효율성을 세계가 인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유형, 규모나 장서의 수, 서버의 OS, DBMS, 하드웨어와 무관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세계 유일의 시스템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INNOVATIVE의 Millennium 기본 시스템은 수서, 편목, 대출·반납, 연속간행물, 상호대차, 참고열람, 통합검색, 강의지원, 전자자원 계약관리, My Millennium Portal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뿐만 아니라, MAP(통합 검색시스템), ERM(전자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계약 및 콘텐츠 관리), MetaSource 등의 전자도서관 솔루션도 제공한다.  [글 : 박혜옥, Innovative Korea 대표이사, heyok@iii.com]


〈우리 협회〉

보고회

2004부에노스아이레스WLIC 참가보고 및 2006서울WLIC 진척 상황 보고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 「해외 활동 보고」 세션에서는 “IFLA 2004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회 참가보고 및 2006 서울 대회 준비상황”에 대한 주제 발표로 진행되었다. 먼저 지난 8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2004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2006년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COEX에서 열리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제72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대회”의 진척상황, 진행일정, 대회의 프로그램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2006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점검해 보았다. 참석자는

35명 정도로 적었으나 2006서울대회 때 방문 도서관이나 회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하는 기관들의 대표로 온 참석자들이 많아 1시간 반 정도 진행된 발표시간 동안 시종일관 진지하고 성의있게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발표가 끝난 후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2006년 서울대회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도서관인들과 도서관 및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다만 이번 발표 후 아쉬웠던 점은 아직까지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대해 알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인들이 많지 않은데다가 발표도 마지막 순서였으며, 많은 참가자들이 관심을 보인 프로그램이 같은 시간대에 배정되었던 이유로 청중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년 도서관대회가 열릴 쯤에는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가 1년도 채 남지 않을 때이다. 그러므로 2006 서울대회 발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홍보도 잘 계획하고 실시함과 동시에 발표시간대도 적절히 배정하여 더 많은 참석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도서관인들이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참가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2005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릴 2005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의 전 일정을 비디오 등에 수록하여 발표시간에 영상과 설명을 곁들여 보여줌으로써, 참석자들이 좀 더 실질적이고 쉽게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도와 2006 서울대회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해 보았다.  [글 : 김도미, 한국도서관협회 국제팀장, ja4dk@yahoo.co.kr]